

국제유가, 불안정한 고공비행 지속

KOTRA, OPEC 증산계획 없을 듯 ... 원자재 가격상승 수출에 부정적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동결과 세계 주요 정유기업의 석유 확보량 축소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2004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KOTRA는 1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10일로 예정된 OPEC 장관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회의에서 생산쿼터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장부상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Royal Dutch/Shell은 최근 확보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재평가하면서 장부상 확보량을 20% 축소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 석유 브로커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KOTRA는 “과거 10년 동안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기술발달에 기초한 낙관론에 빠져 자신들이 확보한 매장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국제 석유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Royal Dutch/Shell을 시작으로 장부상 확보량 하향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메이저 기업들의 석유, 가스 확보량 축소조정이 미국의 ENLON 사태와 같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장부상 확보량 하향조정이 대규모로 현실화되면 시장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KOTRA 관계자는 “국제유가 외에도 구리, 철강, 금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출용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원가부담을 높여 수출확대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27>